

조선후기 중앙군영의 입사장 편제와 군수용품의 입사 시문 양상*

김 세 린**

목 차

- I. 머리말
- II. 조선 후기 군수용품의 제작체제와 중앙군영의
장인 배치
- III. 중앙군영 소속 입사장의 직무 유형
- IV. 금속제 군수용품의 입사 시문 양상과 특징
- V. 맺음말

국문초록 | 입사(入絲)는 조선시대 왕실과 민간의 의례, 일상, 취미, 완물 등 다양한 용도를 지닌 공예품의 장식에 사용된 시문기법이다. 기물의 표면에 음각을 하고 금속으로 된 장식 재료를 감입해 문양이나 문자, 상징 등을 표현했다.

유물과 문헌을 살펴보면 입사기법은 조선시대 군(軍)에서 사용된 물품에도 다방면에 활용되었다. 기물의 꾸밈과 상징, 문자의 전달이나 화포의 심지 구획선과 같이 명확한 표식 등 여러 용도가 확인된다. 현전하는 유물에서 나타나는 유형을 보면 사용자의 직위와 의례의 법식을 나타내는 상징과 꾸밈, 군령 등을 전달하거나 무기에 표식 하는 것과 같은 실용으로 시문 목적이 뚜렷하게 구분된다. 시문기법은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 F-2022S1A5C2A02092180).

** 金世麟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연구교수 serine0422@hanmail.net
투고일: 2023. 5. 31. 심사완료일: 2023. 6. 15. 게재확정일: 2023. 6. 19.
DOI URL: <http://dx.doi.org/10.17792/kcs.2023.44..115>

조선시대 공예품에서 사용된 입사의 세부 기법이 두루 사용되었다. 조선시대 군수용품은 중앙의 군기시 소속 장인이 기본적으로 제작하고 상황에 따라 상의원, 제용감, 사용원 등 다른 관청의 장인과 연계해 만들었다. 양난이 끝난 16세기 말~17세기 초에는 여러 무기가 도입되고 군제와 무예제가 개편 및 정비되었다. 이에 따라 군수용품의 제작을 담당했던 장인의 운영 체제에도 변화가 생겼다. 기존 군기시의 제작은 유지되었고 동시에 훈련도감, 어영청, 수어청, 금위영, 충용청 등 수도 방위를 담당한 중앙 군영에도 장인을 배치하여 군영에서 필요한 군수물자를 직접 제작할 수 있게 했다. 중앙 군영 소속 장인은 중앙 관청 소속 장인과 동일하게 경공장(京工匠)으로 편제했고 입사장도 그 중 하나로 포함되었다. 본 논문은 조선 후기 중앙 군영의 군수용품 제작을 담당했던 장인의 운영 체제를 통해 현재 유물로 전해지고 있는 조선 후기 군수용품의 입사 시문 양상과 입사장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그간 미술사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군수용품에 대한 연구 필요성과 윤곽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을 밝혀 둔다.

핵심어 | 입사기법, 군수용품, 조총, 전축, 중앙군영, 입사장

I. 머리말

조선시대까지의 공예는 사회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물을 제작하는 기간 산업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 현재의 공예보다 역할에 있어 보편적 성격이 강하다. 본 논문의 연구 주제인 군(軍)에서 사용된 물품이 조선의 공예 범주에 포함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유물과 문헌을 살펴보면 입사기법은 조선의 군수용품에서 여러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입사(入絲)는 금속공예의 표면 시문 기법으로 기면에 음각을 하고 기면과 다른 재료나 색을 지닌 금속을 음각한 부분에 넣어 장식하는 기법이다. 입사는 기물과 장식재의 색을 다르게 사용하는 기법의 특성을 활용하여 오랜 옛날부터 문양이나 표상, 문자를 표기, 장식하는데 사용하였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조선의 군과 관련된 유물 중에는 입사가 시문된 것이 여럿 있다. 입사를 군수용품에 사용했던 이유는 군에서 사용하는 물품

에 있어 꼭 필요한 군 또는 직위, 명령을 상징하는 표식이나 군례의 법식, 상징 등을 나타내는 표상, 심지 구획 등 무기의 구동부분의 표시 등 명확한 표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입사가 시문된 조선의 군수용품 유물은 조선 후기에 집중되어 있다. 관련 유물과 문헌을 찾아보면 군수용품은 국가 주도로 만들어졌기에 목적과 용처, 상황에 따른 용도가 뚜렷하게 확인되며 이를 만든 장인의 기술과 관의 제작 시스템 운영에 대한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내포되어 있다. 본 고에서 다루는 중앙 군영 소속 입사장은 16세기 말~17세기 초 양난(兩難) 종전 후 시행된 군제 개편과 무기 도입, 무예제 재정비에 따른 군수용품 제작체제 변화와 깊은 연관이 있다. 기존 병조와 군기사가 주도했던 군수용품 제작 및 보급을 수도방위를 수행하는 중앙군영에서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하고 경공장(京工匠)을 배치함으로써 입사장 역시 군영 소속 장인 중 하나로 배속되었다. 이에 따라 경공장 입사장이 소속된 관청은 기존 공조, 상의원과 중앙군영으로 확대되었다. 한편으로는 군영에 소속된 장인도 중앙 관청 소속 경공장의 직위를 지니고 있었기에 군수용품 제작과 함께 국가에서 공역이 진행될 경우 도감에 차출되어 왕실 공예품 제작에 참여했기에 현재 연구가 상당부분 진척된 조선시대 왕실 공예품 제작과도 기술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¹⁾

사실 역사학에서는 이미 군수용품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

1) 미술사학에서는 장경희의 「조선 후기 왕실가례용 공예품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8을 시작으로 왕실공예품에 대한 다양한 주제의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다. 최근에도 장경희, 『국장과 부묘용 의물을 만든 조선의 장인』, 민속원, 2022; 장경희, 『국훈과 연향용 공예품을 만든 조선의 장인』, 민속원, 2022; 구혜인, 「조선시대 선잠제 제기의 구성과 의미 - 영조 정해년 왕비친림작헌례의 제기를 중심으로 -」, 『서울과 역사』 112, 서울역사편찬원, 2022, 87-135쪽; 윤효정, 「조선시대 사의용 의례기 빨간 치의 쓰임과 성격」, 『한국문화연구』 42,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22, 7-38 쪽 등 여러 저서와 논문이 출간되었다.

다.2) 하지만 공예사를 중심으로 한 미술사적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이는 군수용품을 무기로 한정해 보는 경향이 강하고 조선의 공예를 현대적 시점에서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군수용품은 무기 뿐 아니라 군에서 사용하는 각종 의복과 식기, 저장용기, 가구, 수레, 병풍 등 다양한 물품들이 포함된다. 또 기물에 적용된 시문기법도 조선시대 공예에서 사용한 대다수의 기술이 등장한다. 따라서 광범위한 범위를 지닌 조선의 공예를 온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군수용품에 대한 미술사적 연구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은 조선 후기 중앙 군영에 소속되어 군수용품에 입사 시문을 담당했던 입사장의 편제와 입사가 시문된 유물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본 논문은 그간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주제에 대해 입사공예품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윤곽과 연구 필요성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어찌 보면 시문에 머무는 한계가 있다. 아울러 제작 목적과 장인의 편제와 관련된 제도의 설명을 위해 전반적인 군수용품의 제작체제 흐름을 함께 다룰 수밖에 없었던 제약이 있었던 점을 미리 밝힌다.

2) 역사학에서는 군수용품과 관련하여 유승주의 「朝鮮後期 軍需鑛工業史 研究：鳥統製造를 中心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1; 「조선전기 군수공업에 관한 일연구: 입산 중의 무기제조실태를 중심으로」, 『사학연구』32, 한국사학회, 1981을 시작으로 군수용품의 조달, 무기 제작기술, 조선의 군사정책과 무기 운용 등 다방면에 걸친 연구가 진행되었다. 최근에도 고통환, 노영구, 이왕무, 『한양의 삼군영 -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 서울역사박물관, 2019; 홍성우, 「조선 후기烽燧 무기체계와 운영」, 『역사와 경계』, 부산경남사학회, 2023, 83-124쪽; 김우진, 「조선 전기 軍器寺의 冷兵器 제작과 관리-弓矢類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103, 조선시대사학회, 2022, 79-108쪽; 김경록, 「임진전쟁기 조선과 명의 전쟁인식과 군수정책」, 『중국사연구』139, 중국사학회, 2022, 105-134쪽. 등이 있다.

Ⅱ. 조선 후기 군수용품의 제작체제와 중앙군영의 장인 배치

군수용품은 전시(戰時)와 의례, 훈련에 쓰는 무기와 마구, 깃발과 영패와 같은 신호기, 평상시 군영에서 사용하는 각종 식기와 문방구류, 생활용품 등이 모두 포함된다. 기종이 매우 많았으며 민간에서 사용하는 일상품과 겹치는 것도 상당수였다.

조선 전기 중앙군의 군수용품 제작과 조달은 병조와 군기시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³⁾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이후인 16세기 말~17세기 초부터는 기존의 중앙관청과 수도 방위를 담당하던 중앙 군영에서 군수물자 제작을 담당했다. 본 장에서는 입사장을 중심으로 조선의 군수용품 제작체제 흐름을 고찰하고 군영 장인의 편제와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1. 16세기까지의 군수용품 관련 장인과 입사장의 역할

경국대전이 편찬되기 이전부터 입사장(入絲匠)은 경공장으로 역할은 수행했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서는 『경국대전(經國大典)』 반포 이전 입사장의 명칭과 역할이 일부 확인된다.

조선은 고려의 병기 제조와 관리를 담당했던 군기감(軍器監)을 계승해

3) 지방군의 군사용품 및 지방에서 제작을 담당한 군사용품들은 각 지방의 관아 및 都會所에서 담당했다. 조선 초 군사물품의 제작 관련 都會所의 활동 및 조직에 대한 내용은 『朝鮮王朝實錄』 곳곳에서 확인되며, 특히 군사력 및 무기개발에 관심을 보였던 세종-문종 연간에 기록이 집중되어 있다. 도회소의 군기 제작은 중앙에서 내려온 조직에 따라 움직였으며, 기한 역시 중앙정부의 명령에 의해 정해졌다. 사례로 『文宗實錄』卷6, 문종1년(1451) 3월 27일, “議政府據兵曹呈啓: “各道都會所製造軍器, 雖當夏月, 多聚工匠及助役者, 廢農, 誠爲未便. 今考各鎮月課軍器製造之限, 春則自正月至二月, 秋則自八月至十一月. 今此都會所軍器, 亦依此例製造.” 從之.” 등의 기사를 들 수 있다.

국초부터 운영했다. 세종 16년(1434)에는 군기감을 조선의 실정에 적합하게 맞추기 위해 장인의 편제를 포함해 고려의 제도를 정리, 보강해 개편했다. 이와 관련해 1434년 시행된 군기감 장색 개편 및 장인 충원 기록이 남아 있는데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이 기록은 『경국대전』(1485) 체제 이전 군기감의 소속 장인의 분야와 인원을 파악할 수 있다.

<표 1> 1434년 재편된 군기감 소속 장인⁴⁾

직무	소속장인(인원.*은 신설)
기물, 부품제작	弓匠(40), 矢筒匠(9), 弓弦匠(4), 鼓匠(6), 箭鏃匠(23), 鎖子匠(53), 造甲匠(43), 頭具粧飾匠(16)*, 頭具打造匠(16)*, 環刀匠(6), 小木匠(20), 錚匠(6)
세부공정, 장식, 재료가공 (공통포함)	雕刻匠(10), 明油匠(7), 漆匠(9), 踏達匠(10)*, 穿穴匠(16)*, 磨造匠(10), 阿膠匠(4), 爐冶匠(25), 注匠(32), 銅匠(6), 鍊正匠(21), 綱縷匠(20), 古毛匠(8), 藥匠(32), 焰焯匠(35), 取土匠(35), 鑄成匠(8)
총합	603명(기존 293명→310명 충원)

<표 1>을 보면 다양한 분야의 장인이 군수용품 제작에 간여했으며 제작품, 제작공정, 재료에 따라 필요한 장인을 분야별로 배치한 것이 확인된다. 자세 히 살펴보면 궁장(弓匠), 환도장(環刀匠)과 같은 무기, 쟁장(錚匠), 고장(鼓匠) 등 실전 및 의례용 악기, 조갑장(造甲匠), 두구장식장(頭具粧飾匠), 두구타조

4) 『世宗實錄』, 卷64, 세종16년(1434) 6월 11일, “…一. 弓匠二十七加十三, 速毛赤二十加四十, 雕刻匠九加十一, 明油匠三加四, 漆匠七加二, 矢筒匠一加八, 弓絃匠二加二, 阿膠匠二加二, 鼓匠六仍, 爐冶匠十五加十, 注匠九加二十三, 銅匠二加四, 箭鏃匠十三加十, 鍊正匠六加十五, 鎖子匠二十四加十九, 造甲匠十四加二十九, 綱縷匠四加十六, 古毛匠二加六, 頭具粧飾匠今復立十二, 頭具打造匠今復立二十, 踏達匠今復立十, 穿穴匠今復立十六, 環刀匠二加四, 藥匠二十二加十, 磨造匠五加五, 焰(焯) [硝] 匠三十五仍, 取土匠三十五仍, 鑄成匠八加四, 小木匠九加十一, 錚匠二加四 ° 已上在前匠人二百九十三, 加屬匠人三百十.” 從之”

장(頭具打造匠), 주루장(綱縷匠)과 같은 갑옷 및 의복 제작, 마조장(磨造匠), 소로장(爐冶匠), 조각장(雕刻匠) 등 총 29개 분야의 장색이 있다. 이 중 유물과 문헌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입사기법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분야는 두구타조장, 두구장식장, 조각장이다.⁵⁾

우선 두구타조장(頭具打造匠)과 두구장식장(頭具粧飾匠)은 고려 후기 관장(官匠)의 소속기관과 장색이 기록된 『고려사(高麗史)』 식화지에도 나오지 않는 장색으로 조선 초부터 『경국대전』이 편찬되기 전까지 약 50여 년간 짧게 나타나는 장색이다.⁶⁾ 두구타조장은 금속제 투구의 전체 형태 제작을 두구장식장은 완성된 투구 위에 장식을 하는 장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금속기물의 장식을 담당하는 조각장이 10명이나 소속되어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조각장(雕刻匠)은 새김 기술을 근간으로 하여 금속공예품의 세공을 담당한 장인이다. 고려시대에는 중상서(中尙署)에⁷⁾ 조선시대에는 공조(工曹), 상의원(尙衣院), 교서관(校書館), 선공감(繕工監)에 속해있었다. 조각장은 기본적인 금속공예품의 제작, 세공기술을 갖추고 있었다. 조선의 문헌에는 상황에 따라 조각장이 입사 업무를 담당하거나 입사장이 조각장의 업무를 대체하는 사례들이 나타난다. 이는 입사장과 조각장이 지닌 기술이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었음을 의미한다.⁸⁾ 더불어 군기감의 조각장 중

5) 『世宗實錄』 卷46, 세종11년(1429) 11월 28일, “禮曹據鑄鍾所手本啓: “今看編鍾之狀, 形不正圓, 故正面與旁邊, 聲響各異, 擊之小差, 則不協本音. 考之《周禮》, 《文獻通考》, 大宋 皇祐時頒《樂圖》, 鍾形之法, 自唇及頂, 分爲四層, 名狀各殊, 唇上謂之[干;干]. 于上謂之攓, 攓謂之鏃. 蓋慮奏樂工人亂擊他處, 而失其本音, 故標以名之也. 今之鑄鐘, 一依中朝賜樂鍾形, 無標鑄成, 然鍾面着標, 明有古制, 愚惑工人亂擊可慮. 其未鑄朝會樂編鍾, 竝鏃形鑄之, 已鑄編鍾, 以鏃形相似, 銀或鐵入絲著標.” 從之.”과 같이 공적 물품에 입사시문을 하는 것에 대한 논의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6) 『高麗史』 食貨志 祿俸條에 확인되는 고려시대 軍器寺에 소속된 장인은 皮甲匠, 毛匠, 和匠, 白甲匠, 長刀匠, 角弓匠, 漆匠, 鍊匠, 弩筒匠, 旗畫業, 箭匠, 箭頭匠, 皮匠이다. 이 외의 관청에서도 위의 분야는 확인되지 않는다. 고려시대 군기시에 속했던 분야들이 조선시대에 세분화 된 것으로 보인다.

7) 『高麗史』 卷80 志64 食貨志3 祿俸條, 祿俸 諸衙門工匠別賜.

입사기술을 지닌 장인이 존재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문종 원년(1450)에는 군기감과 상의원에서 군수용품 중에 갑옷이나 투구와 같이 연계해 만들 수 있는 물품은 함께 제작하도록 했다.⁹⁾ 세조 6년(1460)에는 병조의 내금위(內禁衛), 상림원(上林園) 등에 속해있던 장인 규모를 축소하고 그 중 일부를 공조의 상의원 등의 관청으로 옮기게 해 공조의 장인 분야와 인원을 늘렸다.¹⁰⁾ 공조로 소속이 변경된 분야에는 입사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각장, 자물쇠를 제작하는 쇠아장(鎖兒匠), 칼을 제작하는 환도장 등도 있었다. 이러한 개편은 병조의 불필요한 인력과 각 아문간 중복되는 공역을 줄이고 효율적인 제작 체제 구축에 목적을 두고 있어 문종대 시행된 제도의 연선행이라 할 수 있다. 세조 연간에는 이 외에도 각 기관에 대한 개편이 이어지는데 세조 12년(1466) 군기감을 군기시(軍器

8) 김세린, 「조선시대 금속공예 入絲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124-126쪽.

9) 『文宗實錄』卷5, 문종원년(1450) 12월 24일, “…今果令尙衣院, 軍器監, 聚會於此造甲, 臣以謂, 國家雖當無事之日, 兵甲不可不鍊, 況有大敵臨境之報, 兵甲之造, 其可緩乎? 然尙衣院 軍器監, 分司供職, 則不顧本司之事, 實爲不可. 令尙衣院 軍器監, 各在本司, 監督造甲, 又治所掌之事, 庶爲兩便. 且尙衣院, 近在闕內, 與正音廳, 奚異哉?” 上曰: “予悉知爾意. 是不欲使予, 煩瀆雜務於闕內也. 尙衣院若可, 則聚於尙衣院爲便, 軍器監若可, 則聚於軍器監爲便. 若兩處皆不可, 則正音廳亦可, 其議於尙衣院提調鄭笨 軍器監提調李思任, 以啓.” 笨 思任議曰: “軍器監官吏率工匠, 在本監, 造葉兒, 送于尙衣院, 尙衣院率工匠, 造甲, 庶無兩處供億之弊. 且兼治本司之事, 甚便於事.” 上從之. …”

10) 『世祖實錄』卷21, 세조6년(1460) 8월 1일, “兵曹啓今將汰兀東西班各品及革罷上林園職各品祿科移給加設內禁衛及各處匠人遞兒節目, …尙衣院內速毛赤, 以四十人定額, 分二番, 每一番二十, 矢人十, 弓人十. 遞兒十內, 副司直一, 司正一, 副司正一, 司勇二, 今加副司正二, 司勇三. … 軍器監弓人以九十定額, 分三番, 每一番三十, 矢人以六十定額, 分三番, 每一番二十. 和會遞兒五內, 副管事一, 典事一, 副典事一, 給事二. 一, 爐冶匠, 注匠, 甲匠, 各以四十五定額, 分三番, 每一番十五, 銷兒匠, 移甲匠以三十定額, 分三番, 每一番十, 環刀匠, 以三十三定額, 分三番, 每一番十一和會遞兒五內, 副典事一 給事二 副給事二. …” 이 조칙을 시작으로 세조 재위기간 내내 제작체제에 대한 개편작업이 이어진다.

寺)로 개칭한 것도 그 중 하나였다. 이후 성종대 반포된 『경국대전』에는 확정된 군기시의 장색이 반영되었다<표 2>.

<표 2> 『經國大典』(1485)에 명문화된 軍器寺의 장인편제

관청	소속 장인(인원)
軍器寺	漆匠(12), 磨造匠(12), 弓弦匠(6), 油漆匠(2), 鑄匠(20), 生皮匠(4), 甲匠(35), 弓人(90), 矢人(150), 錘匠(11), 木匠(4), 冶匠(130), 鍊匠(160), 阿膠匠(2), 鼓匠(4), 練絲匠(2)

『경국대전』에 명시된 군기시 소속 장색과 <표 1>에서 다룬 세종대 군기감 소속 장색을 비교해보면 의복, 가구 등 일반기물, 세부장식이나 시문 등과 관련된 장인들이 대거 빠졌고 대신 궁인(弓人), 시인(矢人), 야장(冶匠), 피장(皮匠) 등 군수용품과 직결된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인원도 확충했다. <표 2>의 군기시 장인 구성은 문종-세조 연간 진행된 군수용품 관련 장인 구성의 재정비 결과물이라 볼 수 있다. 또 이 때 입사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두구장식장과 두구타조장도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대신 투구의 제작공정에 따라 공정을 담당하는 전문성을 갖추고 동시에 다른 기물의 제작 공정에도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야장(冶匠), 연장(鍊匠) 등을 추가해 군기시의 금속품 제작에 효율을 기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 조각장의 소속 관청은 공조, 병조, 군기감에서 공조, 군기시, 상의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입사장은 경공장으로 등재되어 공조와 상의원에 배치됐다.

이러한 군수용품 제작과 관련한 일련의 흐름은 세종 연간부터 지속적으로 정비한 제작체제와 장인의 구성이 법제까지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이 체제는 16세기 말~17세기 초 양난(兩難) 직후 군수용품 제작체제가 개편되기 전까지 유지된다.

2. 17세기 중앙군영의 군수용품 직접 제작과 소속 장인의 구성

양난이 종전된 16세기 말~17세기 초 군제를 개편하고 정책적으로 군비확장과 보강에 나서면서 여러 무기들이 도입 및 군제, 무예제, 제작체제가 재정비되었다. 또 수도를 방위하기 위해 중앙군영인 훈련도감(訓局, 1593년 설치), 총융청(摠戎, 1623년 설치), 어영청(御營, 1623년 설치), 수어청(守禦, 1626년 설치), 금위영(禁營, 1682년 설치)을 순차적으로 설치했다. 그리고 군수물자의 효율적인 수급을 위해 군수용품의 제작을 기존 병조와 군기시와 함께 중앙군영에서도 할 수 있게 하였다. 이에 조선 말까지 중앙군영은 무기를 중심으로 한 군영의 소비 물품을 자체적으로 제작하였다.¹¹⁾

중앙군영의 군수용품 제작은 17세기 이전 훈련도감에서 시작되었다. 훈련도감의 본래설치 목적은 임진왜란기 명군(明軍)에게 들어온 화포를 다루는 포곤 양성이었다. 이후 점차 도입한 무기의 종류와 수가 늘어나자 이를 운용하고 관리할 인력의 수도 함께 늘렸다. 아울러 들어온 무기만으로는 전쟁을 수행하기에 수가 부족해 명군에게 자체 제작할 수 있도록 제작 기술을 이전받아 습득했다.¹²⁾ 훈련도감은 처음에 수입산 무기의 관리 및 이전된 기술로 무기를 제작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이후 점차 무기와 제작

11) 이왕무, 「군정과 재정의 운용」, 『한양의 삼군영: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 서울역사박물관, 2019, 234-236쪽.

12) 임진왜란 개전 이후 명나라가 본격 참전하면서 명이 직접 필요에 의해 가져온 무기들도 있지만, 유성룡 등 조정의 대신들이 명으로 건너가 명의 무기들을 보고 필요한 기종을 선택해 들이기도 했다. 편곤, 박과 같은 무기들이 여기에 속한다. 특히 편곤은 유성룡이 작동원리가 농기구인 도리깨와 유사해 당시 도리깨를 사용하고 있던 조선인들에게 익숙하게 받아들여져 널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건의해 도입되었다. 『宣祖實錄』, 卷46, 선조26년(1593) 12월 19일. “... 成龍曰: ‘唐人所用鐵回鞭, 【前日傳教中所稱者.】 甚好. 高陽人名命會者, 其父死於倭, 發憤殺倭幾四百餘, 嘗以此鞭爲好. 臣在碧蹄時, 有一軍士, 亦言鐵鞭之好.’” 이 기사의 말미에는 李鎰이 이전에 첩편을 받아서 사용해봤음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 “...臣當往觀賊勢, 或把守, 或誘引而出, 勢若可攻, 則亦可爲也. 頃者所下鐵鞭, 可合戰用.”

장인의 운용을 함께 맡게 되었다. 특히 임진왜란에는 군수용품의 제작, 명의 기술 습득, 장인 관리를 함께 담당했다는 것이다. 관리하는 장인은 기존 관청 장인과 새로 징발해 무기제작을 교육시킨 양인, 일본군 포로가 있었다.¹³⁾ 군영의 군수용품 자체제작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중앙군영의 직접 제작이 정착된 조선 후기 문헌에는 군영 소속 장인을 군문장인(軍門匠人) 또는 군문장수(軍門匠手)라 기록했다.¹⁴⁾ 기본적으로 경공장이어서 군영에 배치됐다가 다시 상의원, 선공감, 군기시 등 중앙관청으로 이동하기도 했다. 군영에서는 조총, 화포, 칼, 활, 갑옷과 투구, 화살, 전통, 함, 향아리 등 군영에서 소비하는 모든 무구류와 생활용품을 제작했기에 군수용품의 제작 규모가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군영에서 제작된 물품들은 군영에서 자체 소비, 비축하기도 했지만 전쟁이나 화재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여분을 충분히 만들어 강화도에 있는 별고(別庫) 등에 보관하기도 했다. 이는 입사로 표식이나 장식을 한 칼, 화살통 등도 마찬가지였다.¹⁵⁾

-
- 13) 『宣祖實錄』卷48 선조27년(1594) 2월 29일, “備邊司 啓曰: “降倭非我族類之人, 混處城中未安. 或送於咸興, 鏡城, 寧邊等, 使之教習放砲無妨. 姑令屬於龍山舟師將金友皋手下, 訓習火砲, 焰(焔; 硝)等事.” 答曰: “此倭乃砲手, 其放砲之法, 神速無比, 亦能頗解刀槍等法, 屬於訓練都監, 給料傳習, 不得已然後, 隨後處置可也. 不必過疑. 英雄手段, 豈如是乎?””
- 14) 『훈국등록』, 『어영청등록』, 『어영청구식례』 등 각 군영의 일을 기록한 등록에는 다음의 사례와 같이 군영 소속 장인을 군문장인으로 지칭했다. 『御營廳臚錄』10冊 甲戌二月十二日, “甲戌二月十二日晝講入侍時 知事 吳始復 所啓 慶德宮修改時役處浩多 只以該監工匠勢難完畢各軍門匠人推捉使役何如上曰依所達爲之” 또 『조선왕조실록』에는 군문장인 외에 다음의 사례와 같이 군문장수라는 명칭이 함께 확인된다. 『正祖實錄』卷48, 정조 22년(1798) 3월 16일, “...臣意則勿用軍門匠手, 自戶曹, 募匠以用, 罷其挾鑄, 則錢樣可以復舊, 利亦不少矣...”
- 15) 『正祖實錄』卷12, 정조5년(1781) 12월 19일, “丁亥/藏儲軍器于江華府 別庫, 諭留守曰: “內儲軍物及器用, 別置本府, 設施之法意, 可以仰認. 昔在列朝, 嘗已行之, 作爲故常, 而間因京用之浩多, 又經各庫之回祿, 餘存之數, 不啻千百之一. 予每有仰述舊例之意, 諸凡用道, 務從省約, 非日節用, 宣欲繼志. 御極以後, 不無經紀物種, 而又於昨夏時敵之火, 盡入燒燼. 伊後更復留意貯置, 近始就緒. 以內在黑角長弓四百五十張, 黑角帳弓五十張,

이처럼 제작하는 물품의 종류와 수량이 많았기에 군영에 구성된 장색의 종류도 다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군영에 구성된 장색을 법전과 같이 명료하게 정리한 문헌은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다. 대신 각 군영의 등록과 군영의 장인이 참여한 공역의 도감 의궤를 통해 군영 소속 장인의 장색과 기술을 일부 확인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 장서각에 공개된 조선 17-19세기 의궤, 각 군문 등록의 일지 데이터에서 군영 소속 장인의 분야를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내용이 정리한 것으로 군영에 편제된 장색을 일부 확인함으로써 군영에 어떠한 기술을 가진 장인이 군수용품 제작에 참여했는지 분석하는데 단서를 제공한다.

黑角尙方弓三百五十張，別造黑角弓五百張，方物角弓一百張，竹弓五十張，檜木弓五十張，交子弓四百五十張，六兩強弓一張，合弓子二千一張。狄磨箭一百部，別筈長箭一千七百部，自筈長箭一千五百部，自筈片箭二千部，合箭五千三百部。筒兒二千箇，方物筒箇五百六十部，黑黍皮銀入絲筒箇四十部，合筒箇六百部。故裝環刀一百柄，清製環刀一百柄，長劍十五柄，短劍十柄，合刀劍二百二十五柄，島銃三百柄……”

〈표 3〉 17-19세기 의궤, 등록에 기록된 군영 소속 장인의 장색¹⁶⁾

군영	장색	
	군영 공통 장색	그 외 군영별 장색
훈련도감	궁장(弓匠; 弓人), 시인(矢人), 도자장(刀子匠), 갑주장(甲冑匠), 안자장(鞍子匠), 목수(木手), 각수(刻手),	매집장(每緝匠; 매듭장), 다회장(多繪匠), 관자장(貫子匠), 모절장(毛節匠), 목혜장(木鞋匠), 양태장(涼太匠), 사립장(斜笠匠), 주피장(周皮匠), 입장(笠匠), 소로장(小爐匠), 부납장(付鑼匠), 부금장(付金匠), 납염장(鑼染匠), 입사장(入絲匠), 조각장(雕刻匠), 소이장(召伊匠), 마경장(磨鏡匠), 유장(鑰匠), 동장(銅匠), 은장(銀匠), 납장(鑼匠), 우비장(雨備匠), 일산장(日傘匠), 이지장(耳只匠), 박배장(朴排匠), 장고장(杖鼓匠), 쇠약장(鎖鑰匠), 정철쇠약장(正鐵鎖鑰匠)
어영청	소목장(小木匠), 칠장(漆匠), 야장(冶匠), 주장(注匠),	소로장(小爐匠), 권로장(權爐匠), 유장(鑰匠), 입사장(入絲匠), 조각장(雕刻匠), 동장(銅匠), 마조장(磨造匠), 병풍장(屏風匠), 개장(蓋匠), 담편장(擔鞭匠), 박배장(朴排匠)
금위영	두석장(豆錫匠), 웅장(甕匠), 동해장(東海匠), 기장(旗匠), 거장(車匠), 시장(匙匠), 천혈장(穿穴匠), 줄장(筚匠),	사립장(斜笠匠), 매집장(每緝匠; 매듭장), 다회장(多繪匠), 입염장(入染匠), 동장(銅匠), 삭장(槩匠), 입사장(入絲匠), 은장(銀匠), 부금장(付金匠), 마경장(磨鏡匠), 통장(桶匠), 쇠약장(鎖鑰匠), 병풍장(屏風匠), 박배장(朴排匠), 양산장(陽傘匠), 우산장(雨傘匠), 선장(船匠), 마조장(磨造匠), 담편장(擔鞭匠),
총융청		나전장(螺鈿匠), 점불장(占佛匠), 뉴골장(紐骨匠), 모절장(毛節匠),
수어청		소로장(小爐匠), 쇠약장(鎖鑰匠), 입사장(入絲匠), 조각장(雕刻匠), 삭장(槩匠),

16) 본 표는 서울대학교 규장각(<https://kyu.snu.ac.kr/>),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 장서각(<https://jsg.aks.ac.kr/>)에 조선시대 의궤, 각 군문등록 일지 데이터자료에서 군영 소속 장인의 장색을 추출해 정리한 것이다.

각 군영에 속해있던 장색은 공통으로 편제된 장색과 각 군영에 따라 개별로 있었던 장색으로 나눌 수 있다. 공통 장색의 유형은 무구 및 마구류(궁장, 시인, 도자장, 갑주장, 안자장), 목재 가공 및 공급(목수, 각수), 목제기물 제작 및 옷칠(소목장, 칠장), 금속재 가공 및 합금과 성형(야장, 주장, 두석장), 군영에서 필요한 각종 식기와 저장용기 제작(옹장, 동해장, 시장), 깃발 제작(기장), 수레 제작(거장), 각종 줄 제작 및 구멍 뚫기 작업(줄장, 천혈장)으로 나눌 수 있다. 대체적으로 무기와 생활용품, 운송수단 등 군영에서 필요한 각종 필수용품의 제작 장인은 모든 군영에 배치했음을 알 수 있다.

개별 장색을 살펴보면 금속공예의 경우 형태 성형이 완성된 기물을 마연해 면을 다듬고 광택을 내는 마경장과 장식을 담당하는 조각장, 입사장, 납염장이 확인되어 공정에 따라 작업을 수행할 장인 구성을 모두 갖춘 군영도 존재했음이 확인된다. 또 갓을 제작하는 사립장과 양태장, 관자를 제작하는 관자장, 나막신을 만드는 목혜장과 우비를 만드는 우비장과 같은 장색도 나타나 군영에 속해있던 장색의 폭이 무구부터 군영의 일상 용품 제작까지 매우 넓었음을 보여준다.

또 일반 중앙관청에는 배치되지 않았지만 군영에는 필수적으로 배치된 장색도 일부 확인된다. 기물에 구멍을 전문적으로 뚫는 장인인 천혈장(穿穴匠)은 의궤와 등록에서만 확인되는 장인으로 조총이나 화포, 인장 등의 제작에서 나타난다. 특히 군영에서 가장 중요한 물목 중 하나로 여기는 화기(火器)와 궁시(弓矢) 제작에 참여하는 장인으로 군영의 주요 장색 중 하나라 볼 수 있다.¹⁷⁾

17) 각 군영등록에는 활이나 조총 등 무기를 제작, 수리할 때 구성 하는 군영 내 장인 인원을 기록한 내용들이 남아있는데 여기에서 천혈장이 다수 확인된다. 『금위영등록』의 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금위영등록』乙未三月十一日의 활, 화살, 궁대 제작 및 수리에 참여하는 장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 畫員 一人 丹木名二斤 庫直一名 弓人都邊首折衝金貴弼 各弓箭一部 矢人都邊首出身張雄健 弓人五名 以上各錢文一兩 矢人二名 冶匠二名 木手三名 汪匠二名 朴排匠二名 穿穴匠二名 灸伊匠一名 漆匠一名 以上

하지만 장색을 추출한 문헌 중 의궤의 경우 공역에 주어진 짧은 시간에 많은 수의 물품을 제작해야하는 도감의 작업을 기록했다. 도감은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 상시 있는 장색과 임시 배치한 장색이 공존하며 도감에서는 성책에 기재된 특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면 자신의 원 장색이 아닌 다른 장색에 배치하기도 했다. 따라서 의궤에서만 집계된 이지장과 같은 장색은 이 기술을 지닌 장인이 배치된 사실만을 보여주는 것일 뿐 군영에는 해당 장색명으로 배속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 하더라도 의궤에서 확인되는 장색 역시 군영에 무구와 병영 생활에 필요한 많은 군수용품 제작에 부족함이 없도록 다양한 기술을 가진 장인이 배치되었음을 시사하는 근거가 된다.

Ⅲ. 중앙군영 소속 입사장의 직무 유형

양난 이후인 17세기 중엽 이후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훈국등록』 등 관찬사료와 의궤에는 군영소속 경공장에 대한 내용이 다수 등장한다. 특히 의궤에서는 군영 장인의 국가공역 참여와 역할, 제작품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임진왜란기 훈련도감의 장인 편입을 시작으로 장인들이 중앙군영에 편입되었다.¹⁸⁾ 중앙관청의 경공장, 지방의 외공장(外

各錢文五錢”。 또 이왕무는 군영에서 총류 생산에 종사한 장인 중 하나로 천혈장을 언급했다. 이왕무, 위의 논저(2019), 241쪽.

18) 훈련도감에 언제부터 장인이 편입되었는지 확실치는 않지만 선조27년(1594) 鐵匠의 훈련도감 편입 기사와 선조28년(1595) 기사에 훈련도감 소속 장인의 급료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훈련도감이 설치된 1593년 직후 도감의 필요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宣祖實錄』 卷49, 선조27년(1594) 3월 1일, “... 雖欲分教四方之人, 若無利器, 何以成效? 若擇取京中善手鐵匠五六人, 來習於都監, 藝成之後, 分送於黃海, 忠清沿海各官炭, 鐵有裕處, 設爲都會, 連續打造, 因使精巧勤幹曉解鳥銃之

工匠), 민간의 사장(私匠) 중 일부가 직접 군영에 편입된 것인데 도검, 포, 조총과 같은 무기와 무구는 물론 영을 전달하는 영패까지 제작을 담당했다. 이들은 경공장이기 때문에 훈련도감에서 상의원으로 소속관청이 이전되는 등 군영과 중앙관청 사이에서 소속이 변경되기도 했다. 실제 의례에는 동일 장인이 공역에 따라 훈련도감 또는 선공감으로 소속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군영에 종사한 경공장은 관장에 속하기 때문에 도감 공역에도 자주 차출되었다. 장인의 소속관청이 기록된 17~18세기 의례를 보면 총융청, 훈련도감, 수어청, 어영청, 금위영이 모두 나타난다. 입사장은 경공장이었기에 평시에는 본래의 업무인 군영에서 사용되는 입사공예품 제작 및 공예품의 입사시문을 담당했다. 그리고 국가의 큰 공역이 시행될 시에는 차출되어 권설도감의 작방에 소속되어 부여받은 공예품의 제작 및 시문 업무를 수행했다. 입사장을 포함한 군영에 속한 금속공예 장인은 군영에서 필요한 각종 철물과 무기 제작, 일상생활용품에 참여했다. 특히 무기 제작과 수리는 형태부터 구동장치까지 매우 복합적인 기술을 요하는 작업으로 뛰어난 기술을 가진 장인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했다. 이에 실제 각 군영에서는 기술이 좋은 장인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고, 공조 등에 요청해 군영에 배치하기도 했다. 일례로 『비변사등록』 숙종 12년(1686) 기록에는 야장 박성건(朴成建)의 거취에 대한 내용이 등장한다. 박성건은 재주가 뛰어난 장인으로 수어청에서 공조에 요청해 받은 장인인데, 다시 공조에서 데려감으로써 조총 수리 등 여러 작업에 지장이 생겨 도로 수어청으로 배정해달라는 요청이었고, 결국 박성건은 수어청으로 다시 옮기게 되었다.¹⁹⁾ 수어청의 장인 박성건은 국가의 공역을 수행

人, 爲守令, 專掌其事, 責其成效, 則鳥銃之用, 其路日廣, 而人無不習. 此等條件, 皆係今日急務, 請別爲事目, 廣布中外, 刻日施行." 上從之." ; 『宣祖實錄』 卷61, 선조28년(1595) 3월 10일. "...事若至此, 有司雖蒙重罪, 有不足恤, 其於國體何? 軍餉廳一朔支用, 砲·殺手 訓練都監農軍并米五百七十五石零, 南下砲手妻料米三十二石零, 訓練都監匠人料米六石零,..."

할 때 야장 외에 입사장과 왕, 왕비, 대비의 금속 인장인 금보를 제작하는 금보장(金寶匠), 금보의 인면만을 보전각장(寶篆刻匠) 등 금속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직무를 수행했다.²⁰⁾ 이는 박성건이 기본적으로 수어청의 대장장이인 야장이었지만 입사 기술과 금속 성형기술을 두루 갖춘 장인이었음을 의미한다. 도감에 차출된 입사장 중에는 입사장 뿐 아니라 입사 기술을 가진 다른 장색의 장인도 존재했음을 시사한다.

이외에 군영 소속 장인이 입사장으로 도감에 차출된 사례는 의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박성건의 사례에서 보듯이 원 장색이 입사장이 수도 있고 입사 기술을 가진 장인이 입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차출된 것일 수도 있다. 의례에서 장인의 구체적인 소속 관청까지 기록한 시기는 숙종~영조 연간인 17세기 후반-18세기로 이 시기 도감에 입사장으로 참여한 장인 중 군영 소속 장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
- 19) 『備邊司臚錄』 40冊, 숙종12년(1686) 3월 15일. “治匠朴成建本廳所請得匠人, 而年久使用者也, 本廳移鎮之後工匠議時, 無革罷之事, 而工曹啓請移屬本廳, 連有鳥銃改粧飾之舉, 而不得使役, 事甚悶慮, 仍存本廳何如, 知中樞府事申汝哲曰, 成建素以銃劍善造匠人有名故, 各衙門每當軍器修補之日, 或借用或捉來, 而工曹之啓下似爲非矣, 上曰, 仍屬守禦廳可也.”
- 20) 의례에 기록된 수어청 장인 박성건이 수행한 공역에서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입사장은 『신덕왕후부묘도감도청의례』(1669, 奎13496), 『숙종인경후가례도감왕세자가례시도청의례』(1671, 奎13078), 『인조장렬후삼존호현종명성후상존호준승도감도청의례』(1676, 奎13258), 『명성왕후존승도감도청의례』(1677, 奎14896), 『명성왕후부묘도감도청의례』(1686, 奎13545), 『경종세자책례도감의례』(1690, 奎13091), 『경종단의후가례도감의례』(1706, 奎13092)에서 확인된다. 보전각장은 『숙종인경후책례도감도청의례』(1677, 奎13082), 『숙종인원후가례도감도청의례』(1681, 奎13084), 『태조시호도감의례』(1683, 奎14927), 『책보개수도감의례』(1687, 奎14911) 『옥산대빈승후책례도감도청의례』(1690, 奎13201), 『숙종인원후가례도감의례』(1702, 奎13089)에서 확인된다. 금보장은 『숙종인현후책례도감의례』(1694, 奎13086)에서 나타난다.

〈표 4〉 의궤에 공식적으로 소속이 기록된 군영 소속 입사장

연도	의궤명	원 소속	장인성명	공역성격
1701	仁顯王后國葬都監都廳儀軌	훈련도감	表廷吉	인현왕후 국장
1702	肅宗仁元王后嘉禮都監儀軌	훈련도감	表廷吉 鄭有成	숙종, 인원왕후 가례
		금위영	姜大津	
1718	景宗宣懿后嘉禮都監儀軌	훈련도감	表時才	경종, 선의왕후 가례 (세자/세자빈 가례)
		어영청	鄭有成	
1721	英祖王世弟受冊時冊禮都監儀軌	금위영	鄭有成	영조 왕세제 책봉례
		훈련도감	表時才 安樂成 田壽江	
		수어청	李三同 鄭致成 李儉同	
1725	孝章世子冊禮都監儀軌	금위영	鄭有成	진종(효장세자) 왕세자 책봉례
		어영청	金壽萬	
		훈련도감	李儉同	
1726	仁元王后宣懿王后尊崇都監儀軌	훈련도감	李弘成 表時才	대왕대비였던 인원왕후, 왕대비였던 선의왕후에게 존호를 올리는 의례
1726	別三房儀軌	훈련도감	全守江 李三同	같은 해 치러진 단의왕후 부묘, 인원왕후, 선의왕후 존숭, 정성왕후 책례를 위한 의례품을 함께 제작(3房)
		금위영	李儉同	
1727	孝章世子嘉禮都監儀軌	훈련도감	全守江	진종, 효순왕후 가례 (세자/세자빈 가례)
		수어청	李儉同 李三同	
		금위영	鄭有成	
1731	宣懿王后國葬都監儀軌	훈련도감	李弘成	선의왕후 국장

1732	宣懿王后祔廟都監儀軌	훈련도감	田守江	선의왕후 부묘의례
1736	思悼世子冊禮都監儀軌	훈련도감	朴順徵	장조(사도세자) 왕세자 책봉례
1739	仁元王后尊崇都監儀軌	훈련도감	梁技成	인원왕후에게 존호 올리는 의례
1739	端敬王后復位祔廟都監儀軌	훈련도감	田守江 鄭有成	중종 비 단경왕후 복위 및 부묘의례
1744	思悼世子嘉禮都監儀軌	훈련도감	鄭有貴	장조, 헌경왕후 가례 (세자/세자빈 가례)
1747	仁元王后尊崇都監儀軌	훈련도감	鄭有起 梁技成	인원왕후에게 존호 올리는 의례
1748	眞殿重修都監儀軌	훈련도감	梁斗巨非 田壽江	선원전, 영회전 중수 및 숙종 영정 보수
1772	淑嬪上諡都監儀軌	훈련도감	鄭允金 李振芳	영조 사친 화경숙빈에게 존호를 올리는 의례
1773	顯宗明聖王后英祖貞聖王后貞純王后上號都監儀軌	훈련도감	鄭順興 李振芳 李振威	현종, 현종 비 명성왕후, 영조, 영조비 정성왕후, 영조 계비 정순왕후에게 존호를 올리는 의례

<표 4>를 보면 도감에 차출된 입사장은 훈련도감, 수어청 소속이 많았다. 이 중 훈련도감의 표(表)씨와 정(鄭)씨는 대를 이어 소속되었음이 확인되어 상의원에 대를 이어 소속되었던 안(安)씨와 같이 군영에도 대를 이어 입사 공역을 수행한 가문이 있었음을 보여준다.²¹⁾ 실제 군영에는 입사장 외에도

21) 안씨는 광해군대부터 상의원에서 확인되는 입사장 안응천(安應天, 활동 추정기간: 1609-1621)을 시작으로 18세기까지 나타나는 입사장 집단을 의미한다(김세린, 위의 논문(2019), 481-482쪽). 의례를 통해 확인되는 군영 소속 두 가문 表氏와 鄭氏의 入絲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특히 鄭氏는 본래 대를 이어 상의원에서 활동하다 군영으로 이동한 가문이다. 활동 추정기간은 최초 기록된 의례~마지막 기록된 의례 연도이다. 表氏: 表廷吉(훈련도감, 1690-1702), 表時才(훈련도감, 1718-1728) / 鄭氏: 鄭武信(상의원, 1690-1725), 鄭二山(상의원, 1696-1702), 鄭有成(훈련도감-어영청-금위영-상의원-훈련도감, 1702-1739), 鄭致成(수어청, 1721), 鄭有貴(훈련도

대를 이어 군기(軍器) 제작을 했던 군기 제작 전문 집단인 도감아동군(都監兒童軍)이 있었다.²²⁾ 따라서 입사장에서 확인되는 표씨와 정씨 집단은 군영의 도감아동군 일원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표 4>에서는 한 군영에만 있거나 군영장인 ↔ 중앙관청으로의 소속 이동도 확인된다. 전주강(田壽江, 훈련도감에서 1721-1748까지 활동)은 한 군영에 20년 이상 있으면서 단계적으로 기술습득 및 공역에 참여하고, 입사 작업의 총괄 및 제작기술의 전수를 담당했다. 또 정유성(鄭有成, 훈련도감-어영청-금위영-상의원-훈련도감으로 이동, 1702-1739까지 활동)은 잦은 소속 이동의 사례라 할 수 있다.

법전을 통해 군영과 공조와 상의원의 입사장의 편제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군영이 설치된 후 군영 배속 경공장이 생겨나면서 『대전속록』(1491) 편찬시 각 관청별로 『경국대전』(1476)보다 증원했던 인원이 본래 『경국대전』과 동일한 인원으로 환원된 장색이 많다. 이는 『대전속록』에서 증원한 인원수를 군영 등 새로 장인이 배치되는 곳에 옮기면서 환원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입사장은 중앙군영 전체가 함께 연동, 운용되던 숙종 연간 공조와 상의원에 배속되었던 장인의 수가 축소된다. 하지만 이는 축소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환원이라고 봐야한다. 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경국대전』(1476)이 편찬된 지 15년 만에 『경국대전』에서 충돌 혹은 미흡한 법령을 수정, 보강하기 위해 성종 22년(1491) 『대전속록』을 편찬한다. 이때 공조와 상의원에 소속된 입사장의 인원이 각각 2→4명, 4→7명으로 증원한다. 이는 숙종 32년(1706) 간행한 『전록통고』에서 다시 『경국대전』의 인원수로 환원될 때 까지 유지된다. 『전록통고』(1706)의 분야별 인원수 환원은 입사장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적용되었다. 이 때 『경국대전』 인원으로 환원되지 않은 분야는 대부분 정조 9년(1785) 『대전통편』까지 환원이 이뤄졌다.

감, 1744-1747), 鄭允金(훈련도감, 1772), 鄭順興(훈련도감, 1772-1787)

22) 이왕무, 위의 논저(2019), 239쪽.

그리고 이는 고종 2년(1865)에 편찬한 『대전회통』까지 유지된다.

『전록통고』가 편찬하던 시기에는 이미 중앙군영 체계가 완성되고 각 관청 별 장인의 배치도 거의 완료된 상태였다. 따라서 조치에 따라 축소된 정원 외의 인원은 다른 관청에 배치되었을 수도 있지만 군영에 배치되었을 가능성도 높다. 실제 기존 중앙관청에서 지급하던 이들의 급료를 훈련도감 등 군영에서 직접 지급했다는 기록이 효종 이후 꾸준히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상황에 따른 인력 이동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군영의 장인은 평시에는 온전히 군영에 속해 제작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앙군영에는 다양한 소속의 장인들이 각 군영의 물품 제작을 위해 배치되었는데 여기에는 입사장도 있었다. 실제 현전하는 조선 후기 입사가 시문된 유물을 보면 검, 철퇴, 편곤, 조총 등 일반 무기는 물론 장수가 휘하 군술을 지휘하고 본인의 지위를 상징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봉, 등채 등 군에서 사용하는 각종 실전, 위엄, 의례, 일반 물품이 확인된다.

Ⅳ. 금속제 군수용품의 입사 시문 양상과 특징

조선시대 군사용품은 무기와 마구, 군영 내 숙위 및 전시상황에 대비한 생활용품(이하 군수용품)에 행렬, 사열 등 각종 군사의례(이하 군례)에서 사용하는 의례품이 있다. 이들은 용도와 성격에 따라 각각 세부 구성 물품을 지니고 있다. 실제 전시 및 훈련이나 숙위 등 평시, 의례 등 다양한 상황과 장소,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같은 무기라 하더라도 형태는 동일하지만 용도에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군수용품의 소비를 파악하는 데는 이와 같은 용도와 장소, 상황이 중요하다. 그리고 위계가 철저한 군대 안에서 사용자의 신분에 따른 사용은 또 하나의 핵심 제작요소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조선 후기 중앙군영에 속해있던 장인은 평상시에는 군영에서 필요한 물품을 제작했고 의례나 영건과 같은 국가의 공역이 시행될

시에는 차출되어 공역을 수행했다. 따라서 군영에서 사용된 군수용품과 의례용 공예품의 입사 장식의 상당수는 군영 소속 입사장이 참여했다. Ⅲ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 의례에 기록된 공역에 참여한 입사장 중 군영 소속 장인이 여럿 있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이에 본 장에서는 군영의 군수용품과 의례용 무구류를 분석에 함께 포함하고자 한다. 입사가 시문된 조선 후기 군수용품은 실전, 평시, 의례 모두 확인되며 대부분 동과 철로 제작되었다. 입사의 세부 기법인 끼움입사와 쫓음입사가 고루 나타나는데 문자를 선명하게 표식 할 때는 끼움입사, 문양이 다채롭게 시문된 유물에서는 쫓음입사 위주로 확인된다.

본 장에서는 입사가 시문된 군수용품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조총, 철퇴와 붕, 투구, 전촉과 영패를 중심으로 시문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입사로 장식된 도검(刀劍)과 마구(馬具)는 군은 물론 민간, 왕실에서도 다양하게 사용되었기에 본 장에서 군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도검과 마구는 별도의 다른 논고에서 다루고자 한다.

1. 조총

조총은 불을 붙이는 심지인 화승(火繩)을 이용해 점화해 발사하는 총으로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이 사용했고, 이후 조선 중-후기에는 조선의 주력병기 가운데 하나로 활용되어 중앙군 및 지방군에 도입되었다. 조총(鳥銃)은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사용했던 병기로 우리나라, 중국, 일본에서 16-19세기 폭넓게 사용되었다. 임진왜란 이전인 1589년(선조 22) 황윤길과 김성일이 일본에서 이미 접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황윤길 일행이 돌아오는 길에 쓰시마도주에게 몇 자루 받아온 것이 조선에 들어온 조총의 시초로 도입 이전부터 조총에 대한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은 오다노부나가(織田信長, 1534-1582) 집권기인 아즈차·모모야마시

대에 화포와 조총 등의 도입 및 연구에 집중했으며, 오다노부나가의 후임이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1536-1598)가 전국 통일전쟁에서 주력무기로 조총을 화포와 함께 사용해 기술력을 더욱 높였다.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군이 사용한 조총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완성된 것이고, 중국의 조총 역시 이자성의 난 이후 중국 내 여러 혼란한 과정 속에서 실전배치를 통한 기술 강화를 한 뒤에 16세기 말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조선은 임진왜란이 개전된 후인 1593년 이순신이 휘하 훈련주부인 정사준을 시켜 조총과 기존의 개인 화기인 승자총(勝字銃)을 절충해 소승자총(小勝字銃)을 만들어 전쟁에 투입한 것이 최초의 실전배치라 할 수 있다. 이후 1624년(인조 2년) 일본에서 조총 수천자루를 구입했다는 기록이 있는데²³⁾ 이후 훈련도감에서 1653년(효종 4년) 제주도에 표착한 네덜란드인 하멜을 훈련도감에 배속시켜 새로운 조총 제조에 참여하라고 하는 등²⁴⁾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거쳐 조선식 조총을 완성했다. 따라서 조선의 조총은 조총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화승총이란 명칭도 같이 사용한다.

조총의 입사시문은 보통 철로 제작된 총구의 윗부분에서 확인된다. 문양을 구획하는 원과 원 안에 현(玄), 장(壯) 등의 문자를 새기고 새긴 부분에 황동과 같은 동합금을 문양의 형태 그대로 성형해 감입하는 끼움입사를 사용해 시문했다. 조총 두 점에 각각 새겨진 현(玄)과 장(壯)은 해당 조총을 사용했던 군영인 어영청(御營廳)과 장용영(壯勇營)을 의미한다. 현과 장이

23) 『仁祖實錄』 인조2년(1624) 5월 11일, “遣鄭岙, 姜弘重, 辛啓榮, 回答于日本. 岙等將行, 啓曰: ‘天朝, 父母之邦, 雖或懋遷有無, 固無大害, 而尚有搜檢之法. 況倭奴, 仇讐之邦, 遣使回答, 實出於不得已. 如有帶貨牟利之事, 則使价之見侮, 國體之虧損, 係關非細. 請依赴京例, 發遣京官, 另行搜檢犯禁之人, 斷以潛商之律. 且因備局公事, 以花絲紬數千匹, 令貿鳥銃環刀以來. 當此聖明之時, 初遣使价, 公然帶貨, 開此貿易之路, 則竊恐受侮島夷, 虧損國體.’ 答曰: ‘依啓. 搜檢事, 使臣嚴禁, 則自無此弊, 何必別遣京官乎?’”

24) 『孝宗實錄』 효종7년(1656) 7월 18일, “造新制鳥銃. 先是, 蠻人之漂到也, 得其鳥銃, 其制甚巧, 命訓局倣而造之.” 새로운 조총을 제작했다는 이 기사는 표류한 하멜 일행에게 얻은 조총의 성능이 뛰어나 훈련도감에서 모방해 제작한 것이다.

어영청과 장용영을 상징하는 것은 17세기부터 주조된 동전인 상평통보(常平通寶)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되었다.²⁵⁾ 상평통보에는 주전의 주체가 된 호조, 어영청, 총융청, 개성감영, 장용영 등의 기관 및 군영을 상징하는 글자가 주조되어있다. 여기에서 어영청은 지(地) 또는 현(玄)을 사용했고 장용영은 장(壯)을 사용했음이 밝혀졌다.²⁶⁾ 따라서 조총에 끼움입사 된 문자 역시 두 군영을 상징하는 것이라 추정된다. 유물을 살펴보면 장식재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지만 끼워진 장식재가 박락되어 음각유물과 같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끼움입사가 된 경우 박락면을 보면 입사 장식재가 시문되었던 흔적이 확인된다. 또 라이프치히그라시민속박물관 소장 <화승총>의 총열 하단에는 ‘병인삼별우○입부선 丙寅三別宇○仅先’이라는 명문이 있다.<표 5>

<표 5> 조총 입사시문 사례

		<p><호자문화승총>, 19세기 독일라이프치히 그라시민속박물관</p>
		<p><조총>, 조선후기, 국립고궁박물관</p>

25) 윤용현, 조남철, 정영상, 임인호, 「상평통보 주조와 복원기술연구」, 『문화재』 47-4, 국립문화재연구소, 2014, 226-229쪽.

26) 윤용현, 조남철, 정영상, 임인호, 앞의 논문(2014), 227-228쪽



2. 철퇴 및 봉류

철퇴는 머릿쇠와 자루로 구성된 타격 무기이다. 타격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공격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역사가 가장 긴 무기 중 하나이며 우리나라 뿐 아니라 고대 이집트, 페르시아, 인도, 수메르, 유럽, 중국 등 다양한 문화권에서 사용되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의례와 실전에서의 철퇴 용례와 형태가 확인되며, 그 외 문헌에서도 용례가 확인된다. 철퇴는 무기이자 의물이었기에 공적인 성격이 강했다. 따라서 제작은 군기시(軍器寺) 또는 각 군영에서 담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의례용은 기복 및 상징 문양을 사용한 입사장식이 뚜렷하며 실전용은 당초문 등만을 활용해 지휘관의 상징만 표현했다.

현재 전해지는 철퇴 유물 중 입사가 시문된 것 대다수는 의례 또는 궁의 호위군이 사용했던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이다. 먼저 둥근 머릿쇠와 긴 자루를 가진 기본적인 형태의 철퇴를 살펴보면 머릿쇠는 철로 제작하고 자루는 나무 또는 철로 제작된 유물이 확인된다. 입사 시문은 전체를 철로 만든 것은 머릿쇠와 자루 모두에 입사가 시문되었으며, 자루를 나무로 만든 것은 머릿쇠에만 입사가 장식되어 있다. 문양은 귀문, 화당초문, 샷자리문 등이 두루 사용되었다. 철로 제작되었기에 입사의 세부기법은 쫓음입사가 사용되었다<표 6>.

〈표 6〉 철퇴 재료 유형별 입사양상

유형	유물	서문양상	유물명
철			<철제은입사몽둥이>, 조선후기, 국립중앙박물관
			<철제은입사귀면문철퇴>, 조선후기, 국립고궁박물관
철+ 나무			<철퇴>, 조선후기, 국립고궁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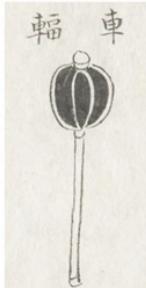
아울러 군례용 철퇴 중에는 입과(立瓜)와 차복(車輻)이 확인된다. 입과와 차복은 조선시대부터 의례에서 확인되는 의물로 각각 과일형태의 머리 형태, 수레바퀴의 뜻을 지니고 있다. 과일형태의 철퇴와 수레바퀴의 의물 사용은 이미 고려시대 이전에도 다른 용례와 명칭으로 확인되기에 조선 이전부터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세종실록오례의(世宗實錄五禮儀)』 가례(嘉禮)와 군례(軍禮)에는 입과와 차복에 대한 규범과 형식이 기록되어 있다. 먼저 입과는 머리 모양을 참외(瓜)와 같이 만들고 금, 은을 발라 나무로 만들고 주철을 한 봉 위에 세워 놓도록 하였다.²⁷⁾ 차복은 지휘봉으로 중국 한대에 연원을 두고 있으며 여덟모를 새겨 머리를 만들고 나무를 사용하여 자루를 만든 후 아래 끝은 쇠로 덮어씌우도록 규정했다.²⁸⁾

27) 『世宗實錄』卷132, 五禮, 嘉禮 序例, 鹵簿3, 銀立瓜. “制形如瓜, 塗以銀, 立置朱漆棒首.”; 『世宗實錄』卷132, 五禮, 嘉禮 序例, 鹵簿3, 金立瓜. “制如銀立瓜, 塗金爲異.”

28) 『世宗實錄』卷133, 五禮, 軍禮 序例, 兵器. “《事物紀原》, 車輻, 棒也. 漢朝執金吾, 金吾, 亦棒也, 以銅爲之. 黃金塗兩頭, 謂之金吾, 一曰形如車輻也. 鄉名李刺兀, 用黃銅刻

『세종실록』오례와 의궤에 기록된 의례에 사용된 입과와 차복의 재료는 나무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현전하는 유물 중에는 철을 중심으로 형태를 금속으로 만든 후 표면을 도금하거나 머릿쇠에 문자를 입사로 시문한 사례들이 있어 조선시대에 목제, 금속제 입과와 차복이 병용되었음이 확인된다.<표 7>

<표 7> 금속제 입과, 차복 유물 사례

구분	세종실록오례의 도설	유물 사진	도금/입사 양상
입과			
	금입과/ 은입과	<철퇴>, 조선후기, 국립고궁박물관. (철제, 입사시문)	
차복			
	<차복>, 조선, 해군사관학교 박물관, (철제, 도금)		

임진왜란기 명에서 도입된 편곤도 조선의 철퇴류 무기 중 하나로 철추(鐵鎚)라고도 한다. 자루와 사슬, 사슬에 연결된 철편으로 구성된 편곤은 농기구 중 하나인 도리깨와 같은 구동 원리를 지니고 있다.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1790)에는 중국과 조선의 편곤의 차이를 소개했는데 중국은 연결하는

八稜爲首，用木爲柄，下端冒以鐵。”

쇠사슬이 긴 반면, 조선은 쇠사슬의 길이가 짧아 마치 쇠도리깨 같다고 기록했다.²⁹⁾ 편곤의 유래에 대해서는 설이 분분한데 동아시아에서는 송나라 태조 조광윤이 전쟁 시 사용했던 곤봉이 부러져 이를 줄로 연결해 사용한 데서 유래했다는 설과 후한대 戎族이 사용했던 무기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존재한다.³⁰⁾ 우리나라에는 조선시대 임진왜란 당시인 1593년 명에서 도입되었으며,³¹⁾ 조총을 주요 무기로 사용하는 왜군과의 육박전을 위해 1593년 유성룡의 건의로 도입되었다.³²⁾ 편곤의 작동원리는 농기구인 도리깨와 유사한데 당시 도리깨를 이미 사용하고 있었던 조선인들에게 익숙하게 받아들여져 널리 사용되었다고 한다. 도입 당시에는 철편(鐵鞭), 철회편(鐵回鞭)으로 불렸으나 인조대 기록부터는 편곤(鞭棍)이라는 명칭으로 조선 말까지 지속된다. 한편으로는 철편도 병용되었다.³³⁾

편곤은 조선 후기 의례 및 실전에서 모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전하는 유물을 보면 구성 요소 모두 철로 제작된 것과 철편과 사슬은 철로 제작되고 자루는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 있다. 철편의 형태는 구형, 원통형, 옆형

29) 『武藝圖譜通志』 卷4 鞭棍.

30) 이치카라 사다하루, 『무기와 방어구-서양편』, 들녘, 2004, 101-102쪽.

31) 『宣祖實錄』, 卷46, 선조26년(1593) 12월 16일. “傳于政院曰: “前在肅川, 觀劉總兵所送諸戎器, 奇形異制, 皆非我國人所能用, 其中有鐵鞭. 【制如我國農人打稻鞭.】 我國無兵, 所謂兵者, 只是農夫, 農夫能用都里鞭. 【即打稻鞭, 俗名也.】 若此器, 我國無不用矣. 我國人不知劍槍之術, 安能一朝學成? 莫如此器之便於運用. 示于李鎰, 如以爲可用, 下兩湖造用, 如以爲不可用, 還入.” 回啓曰: “招李鎰示之, 則守城及戰傷, 皆可用, 今當齎去造用云.””

32) 『宣祖實錄』, 卷46, 선조26년(1593) 12월 19일. “... 成龍曰: ‘唐人所用鐵回鞭, 【前日傳教中所稱者.】 甚好. 高陽人名命會者, 其父死於倭, 發憤殺倭幾四百餘, 嘗以此鞭爲好. 臣在碧蹄時, 有一軍士, 亦言鐵鞭之好.’” 이 기사의 말미에는 李鎰이 이전에 철편을 받아서 사용해봤음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 “...臣當往觀賊勢, 或把守, 或誘引而出, 勢若可攻, 則亦可爲也. 頃者所下鐵鞭, 可合戰用.”

33) 철편은 등채와 봉의 명칭으로도 함께 사용되어 막대 형태를 근간으로 하는 무기를 통칭하는 명칭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등 다양하며(도1, 도2) 자루가 소실된 육군박물관 소장 <철제은입사편곤>(도3)과 같이 철편이 2단으로 구성된 것도 있다. 자루는 대부분 통형 막대 형태이다. 입사 시문은 철로 만들어진 것을 위주로 나타나며 은으로 화려하게 입사 장식을 해 주로 왕실 호위와 왕실 및 중앙군의 군례에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도1. <철편>, 조선후기, 국립고궁박물관



도2. <철편>의 철편과 봉 끝 육모쇠 부분 입사 시문 양상



도3. <철제은입사편곤>, 조선후기,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곤봉 역시 의례와 무기에 동시에 활용된 기물이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세조(재위기간: 1455~1468)까지는 재질이나 용도에 따라 주칠봉(朱漆棒) 등의 명칭이 확인된다. 또 봉을 이용한 무술을 봉술(棒術)³⁴⁾, 말을 타고 봉을 사용하는 무술을 기추(騎芻)라 하였다.³⁵⁾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를

34) 『太祖實錄』卷2, 태조1년(1392) 9월 24일. “各道經明行修, 道德兼備, 可爲師範者; 識通時務, 才合經濟, 可建事功者; 習於文章, 工於筆札, 可當文翰之任者; 精於律算, 達於吏治, 可當臨民之職者; 謀深韜略, 勇冠三軍, 可爲將帥者; 習於射御, 能於棒石” 등의 사례가 있다.

35) 무술의 한가지로 말을 달리며 철편, 편곤, 철퇴, 곤봉 등의 무기로 짚으로 만든 사람을 내리치는 기예이다. 조선시대 군사훈련 및 무과와 관련해서 기추는 중요한 훈련종목으로 나타난다. 『肅宗實錄』卷17, 숙종12년(1686) 8월 9일. “辛酉/御春塘臺, 試馬上才及偃月刀騎芻各技,”과 같은 사례가 있다.

편찬해 군에서 쓰는 무예와 무기를 정리했던 정조 이후에는 다시 곤봉, 봉으로 명칭이 환원되는데 실제 정조 17년(1793) 이후 『조선왕조실록』에는 철편이라는 명칭이 등장하지 않고, 철편과 비슷한 성격을 지닌 무기를 지칭 할 때는 곤봉이 지속적으로 사용된다.

곤봉 중 육군박물관에 소장 두 유물은 용도에 따라 형태를 달리하는 봉의 특징을 보여준다. <철택은입사봉>은 손잡이에 장식이 없고 타격부에 화당초문을 뾰뾰하게 시문했다. 조선 말 훈련대장 훈련 지휘에 사용되었다고 전해지는 <철택수봉>은 봉 부분에는 장식이 없으며 손잡이 윗부분에만 간략하게 꽃이 시문되었다. 봉 유물 중에는 등채 또는 등편이라 부르는 봉도 있는데 수봉과 동일한 지휘용 봉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 후기 곤봉 유물 중 금속제 입사 시문 봉의 수량은 적은 편이다. 대신 철이나 나무로 제작된 무늬가 없는 봉은 많은 수가 전해지고 있어 조선 후기 사용된 무예용, 지휘용 봉의 형태를 짐작하게 한다.<표 8>

<표 8> 입사 시문된 곤봉의 용도별 유형과 입사양상

무예용 봉	지휘용 수봉
	
<철택은입사봉>, 18-19세기, 육군박물관	<철택은입사수봉>, 19세기, 육군박물관
	
<철택은입사봉 일괄>, 조선후기, 국립중앙박물관	<철택은입사등채>, 조선후기, 독일라이프치히그라시민속박물관

3. 투구

투구(鬪具, 頭具, 鬪帽)³⁶⁾는 전투시 적의 무기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쓰던 방어장비이다. 선사시대부터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삼국 시대의 유물과 고분벽화 등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고대 투구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투구는 머리에 씌우는 부분인 감투(敢鬪), 감투에 뽕족하게 부착하는 간주(干柱)와 간주 위에 보석이나 장식물을 다는 보주(寶柱), 감투에 부착해 간주와 보주를 고정하는 개철(蓋鐵), 감투 아래에 햇볕 등을 가리고 얼굴을 보호하는 차양(遮陽)으로 구성되었다. 각 구성물은 따로 제작되어 리벳으로 조립되었다. 투구의 입사장식은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서아시아, 유럽 등 다양한 문화권에서 전개되었는데 보통 철로 만든 투구의 감투 표면과 차양에 시문되었다. 입사 장식 투구는 높은 계급이나 신분을 지닌 이들이 사용하였다.

조선의 투구는 기본적으로 삼국시대부터 이어온 형태를 갖추고 있었으며, 여기에 고려 후기에 유입된 중국 원의 형태와 장식이 가미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원대 투구 유물 중 입사가 시문된 것은 철제 투구인데 대부분 개철이 박락되어 감투만 남아있지만 투구 구조와 시문 형태가 조선, 중국 청과 유사해 이 시기 투구 형식이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표 9>. 이와 같은 고려의 경향이 조선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까닭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투구를 비롯한 군기의 제작 자체가 군기시(軍器寺, 고려-조선 세조 12년[1466]까지는 軍器監)에서 이뤄져 제작주체기관 및 제작자의 계통이 고스란히 전승된 까닭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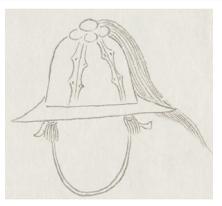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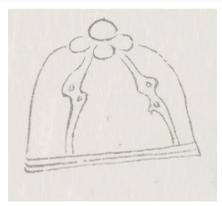
36) 실록과 의궤 등 조선의 관찬사료에는 투구라는 명칭보다 頭具, 鬪帽이 많이 확인된다.

〈표 9〉 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 소장 중국 14-16세기 원, 북원대
철제 입사투구 형태와 시문양상

			
〈투구, 원 또는 복원 14-16세기	〈투구, 원 또는 복원 14-15세기	〈투구, 원 또는 복원 14-16세기	〈투구, 원 또는 복원 14-15세기, 티벳출토

조선의 투구는 머리에 쓰는 감투에 달린 차양과 같이 생긴 둘레의 유무에 따라 종류를 구분했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문헌 중 조선의 투구 분류 기준을

〈표 10〉 세종실록 오례의 투구 분류 도설

	
침주(簷冑)	원주(圓冑)

규정한 가장 이른 기록은 『세종실록』 오례의 군례(軍禮) 서례에 의하면 “투구는 철로 만들고 감투에 모자의 차양처럼 둘레가 있는 것을 침주(簷冑), 둘레가 없는 것은 원주(圓冑)”라 하였다<표 10>.³⁷⁾ 『세종실록』 오례의 군례에 기록된

도설과 현재 전해지고 있는 조선의 투구 유물 중 입사 시문이 되어 있는 투구는 철로 제작된 원주 투구가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시기는 17~19세기 유물이 많은 편이다. 감투, 개철, 간주, 차양, 대철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37) 『世宗實錄』卷133, 五禮, 軍禮序例, 兵器, 甲冑. “冑. 《說文》, 兜, 鍪也. 兜鍪, 首鎧也, 以鐵爲之. 有簷曰簷冑, 無簷曰圓冑.”

있으며, 여기에 상모나 옆드림(側幕)과 뒤드림(後幕)이 동반되기도 한다.

조선 후기 입사 투구의 구조와 쫄음입사를 사용한 시문 기술은 중국 북경 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동시대 청대(清代) 강희제(姜熙齊, 1654-1722), 건륭제(乾隆帝, 1711-1799), 가경제(嘉慶帝, 1796-1820) 시기의 갑주 일괄 유물과 그 외 해외 소장 청대 입사투구들과 거의 같으며 세부 장식 및 문양에 있어 차이가 있다. 청 역시 명보다는 원과 북원의 투구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³⁸⁾ 감투 전면 혹은 근철을 부착한 후 사이사이에 입사로 문양을 시문해 장식하거나 장식구를 부착했고, 차양에도 입사를 시문한 경우가 확인된다. 조선 후기 투구 유물 역시 차양과 개철, 대철에 입사장식을 했다. 현재 전해지는 조선의 입사 투구 유물이 적어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근철 사이에 부착한 장식구가 박락된 흔적이 확인되기도 한다. 따라서 조선과 청 양국이 신분과 직위 등을 표시하는 문양이나 상징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투구의 입사 장식 배치 구조는 유사했던 것으로 생각된다.<표 11>

38) 청이 건국되기 전부터 만주족과 북원을 중심으로 한 몽골족과의 교류가 지속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표 11〉 조선과 청의 원주형 철제 입사 투구의 양상

청		조선	
			
<p><강희제 용포갑주일괄> 중 투구, 청 17세기, 중국북경고궁박물관</p>	<p><순치제 갑주일괄>의 투구 입사부분, 청 19세기, 중국 북경고궁박물관</p>	 <p><이완장군투구>, 조선 17세기, 경기도박물관</p>	 <p><철제은입사투구>, 조선후기, 육군박물관</p>

이 가운데 사용자가 명확한 것은 <이완장군투구>(경기도박물관 소장)로 조선 효종대 활동했던 장군 이완(李浣: 1602-1674)의 투구이다. 이 투구는 효종에게 하사받은 투구로 추정되며 수철(水鐵)로 제작되었다. 현재 갑두, 개철, 간주, 대철 부분이 남아있다. 전체적인 형태는 현전하는 유물들과 거의 동일하며, 간주와 개철과 대철에 입사장식이 되어있다. 이완장군 투구는 왕의 하사품 사례이다. 효종의 북벌정책을 수행했던 장군 이완(李浣: 1602-1674)은 효종 5년(1654) 왕에게 갑옷과 투구, 화살, 화살통을 하사받았는데, 갑옷과 투구(실록에서는 嵌金銀御甲冑)는 금과 은으로 장식한 것을 하사한다는 기록이 있다. 경기도박물관에는 이완이 사용했다고 전해지는 투구가 현전하는데 기록과 동일하게 금으로 입사시문이 되어있어 효종에게 하사받은 투구일 가능성이 농후하다.³⁹⁾ 이는 하사를 용도로 소비된 갑주,

39) 『孝宗實錄』 卷12, 효종5년(1654) 5월 26일, “丁亥/上下教曰: ”閱武之舉在邇, 經營戎

무기 등 군사물품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한편 현재 전해지고 있는 유물 중 투구가 결실되고 입사로 시문된 투구 장식만 남은 유물은 대부분 투구 윗부분에 부착되어 간주를 꿰는 개철 또는 개철과 간주가 함께 있는 유물로 개철에 쪼음입사로 화당초문 등 문양을 화려하게 시문했다.(도4, 도5)



도 4. <철제입사투구장식>, 조선, 국립중앙박물관



도 5. <철제입사반구형장식구>, 조선 19-20세기 초, 영국 빅토리아알버트뮤지엄

4. 영패와 전촉

영패와 전촉은 군영의 명령을 군영의 수장이 내려 각 하위조직에 전달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화살, 창 등 무기의 형태로 제작된다. 전촉은 수장이 명령(승)을 내린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보한다. 일일이 직접 하위조직을 찾아다니며 명을 전달할 수 없는 만큼 전촉을 가져가는 이는 명령을 내리는 이를 대변한다는 상징성을 지닌다. 전촉은 명령을 내리는 주체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엄중함 즉 명령의 권위를 함께 내포한다. 즉, 전촉은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무기의 형태를 갖춰 군을 상징하고, 동시에 촉 모양으로 성형한 철 표면의 중심에 영(승), 뒤에는 훈국대장(訓局大將) 등 영의 주체를 새기고

務, 悉在大將, 宜有寵異之典, 激勵將士. 以嵌金銀御甲冑, 白羽大箭, 角弓筒, 賜李浣.”

은이나 오동으로 입사함으로써 근거리는 물론 원거리에서도 쉽게 명이 왔음을 전달하는 목적을 입사 기법으로 구현했다. 위의 두 기종이 의례 및 군영 내에서 위계 상징적 성격의 및 명확한 표식에 중점을 둔 실용적 목적을 동시에 보여준다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용처 및 용도가 분명하게 확인되는 유물 중에는 영패와 영전축이 있는데 중앙군영은 물론 고종 21년(1884) 개편 설치한 장위영, 총어영, 장위영, 통위영 영전축도 전한다<표 12>.

<표 12> 훈련도감, 총어영, 장위영의 영패와 영전축

훈련도감		장위영		총어영	
					
<훈련도감영전축>, 19세기, 독일 라이프치히그라시민속 박물관		<친군장위영사영전축>, 19세기 말, 독일 라이프치히그라시민속 박물관		<철계은입사총어사 전명패>, 19세기 말, 국립중앙박물관	

이 유물에는 명령을 내리는 사람의 직책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입사장이 중앙 군영 전체에 배속되지는 않았겠지만, 훈련도감, 금위영 등 일부 군영에 소속되어 활동했음을 보여준다. 『만기요람(萬機要覽)』(1808)의 군기(軍器) 현황에는 입사가 시문된 환도가 훈련도감, 금위영에서 확인되어 현전하는 유물 및 아래 언급되어 있는 군영 소속 도감 차출 장인의 소속 군영 현황과도 일부 부합한다.⁴⁰⁾

40) 『萬機要覽』軍政篇2, 訓練都監, 軍器. “... 環刀七千二百十九柄. 五千九十四柄. 別武士, 馬, 步軍分給. 塗金粧飾一柄. 入絲粧飾一柄. 長劔一柄. 短劔一柄. 條鐵別環刀五十九柄. ...”

『萬機要覽』軍政篇3, 禁衛營, 軍器. “... 環刀一萬一千六百三十七柄. 一萬二百六十九柄.

V. 맺음말

지금까지 조선후기 중앙 군영의 군수용품 제작체제와 입사의 활용 양상을 문헌과 유물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국가를 수호하는 국방에 있어 한 축인 군수물자의 제작과 효율적인 수급은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중요한 과제였다. 특히 짧은 기간 동안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큰 전란을 거친 직후인 17세기에는 제작과 수급체제의 개편에 심혈을 기울였다. 조정에서는 기존 중앙관청인 병조, 군기사의 일원화된 제작체제에서 실제 전시에 직접 투입되는 중앙군영까지 직접제작을 하게 하는 이원화된 체제를 선택했다. 당시 공예는 국가기간산업으로서 무기의 제작까지 수행했던 만큼 이와 같은 체제의 변화는 제작 및 제작자인 장인의 역할과 직결되는 것이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제작체제의 변천과 장인의 편제, 역할을 흐름에 따라 고찰했다.

금속의 감입을 통해 기물 장식 및 실용적 목적의 시문을 담당했던 입사장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조선 전기 유물이 소수인 까닭도 있지만, 현전하는 유물을 체제 변화 전후로 비교해보면 입사기법의 실용적 목적으로의 사용이 이전에 비해 확연히 증가한다. 이는 시대상황 및 제도의 변화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예시로 든 입사시문 금속 전축과 봉류, 투구 등은 이와 같은 상황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이처럼 공예는 당시 시대상, 제작 및 소비목적에 따라 제작 및 사용양상이 달라진다.

하지만 주지한 바와 같이 군수용품 역시 당시 공예품의 범식, 제도, 제작체제, 제작자, 소비주체, 기술 등 여러 요소가 현재 공예사에서 인식되고 있는 일상용품, 의례기물과 함께 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용이라는 특수성과 무기라는 인식으로 인해 다른 공예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술사에서 다루이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삼국~조선시대 공예에 대한 보다 면밀한 연구와 실제 파악을 위해 군수용품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別武士, 騎士, 京, 鄉軍兵分給. 長劍三柄. 菖蒲劍一柄. 塗金粧飾二柄. 銀入絲七十柄.…”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군영 소속 장인의 편제와 장식의 종류, 입사기법이 시문된 군수용품을 중심으로 연구를 시도했지만 미진한 부분이 많았다. 특히 기종과 기술, 관련 문양에 대한 연구는 세부적으로 진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한 연구는 향후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1. 사료

- 『各司謄錄』
- 『經國大典』
- 『國朝喪禮補編』
- 『國朝五禮儀』
- 『禁衛營謄錄』
- 『大典續錄』
- 『大典條例』
- 『大典通編』
- 『大典會通』
- 『萬機要覽』
- 『武藝圖譜通志』
- 『備邊司謄錄』
- 『續大典』
- 『受教輯錄』
- 『承政院日記』
- 『新增東國輿地勝覽』
- 『御營廳謄錄』
- 『御營廳救食禮』
- 『日省錄』
- 『朝鮮王朝實錄』
- 『摠戎廳謄錄』
- 『弘齋全書』
- 『訓局謄錄』

2. 의궤

- 『仁顯王后國葬都監都廳儀軌』(1701), <奎 13555>
『肅宗仁元王后嘉禮都監儀軌』(1702), <奎 13089>
『景宗宣懿后嘉禮都監儀軌』(1718), <奎 13094>
『英祖王世弟冊禮都監儀軌』(1721), <奎 13099>
『孝章世子冊禮都監儀軌』(1725), <奎 14909>
『孝章世子嘉禮都監儀軌』(1727), <奎 13106>
『別三房儀軌』(1726)[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외규장각 의궤]
『宣懿王后國葬都監儀軌』(1731), <奎 13576>
『宣懿王后祔廟都監儀軌』(1732), <奎 13579>
『仁元王后尊崇都監儀軌』(1739), <奎 13283>
『思悼世子冊禮都監儀軌』(1736), <奎 13108>
『端敬王后復位祔廟都監儀軌』(1739), <奎 13506>
『仁元王后尊崇都監儀軌』(1747), <奎 13288>
『眞殿重修都監儀軌』(1748), <奎 14913>
『淑嬪上諡都監儀軌』(1772), <奎 13491>
『顯宗明聖王后英祖貞聖王后貞純王后上號都監儀軌』(1773), <奎 13265>

3. 단행본

- 고동환, 노영구, 이왕무, 『한양의 삼군영: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 서울역사박물관, 2019.
- 시노다 고이치, 『무기와 방어구 - 중국편』, 도서출판 들녘, 2009.
- 이치카라 사다하루, 『무기와 방어구 - 서양편』, 도서출판 들녘, 2003.
- 유승주, 『조선시대 광업사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3.
- 장경희, 『의궤 속 조선의 장인』, 솔과학, 2013.
- 장경희, 『조선 왕실의 궁릉 의물』, 민속원, 2013.
- 장경희, 『국장과 부묘용 의물을 만든 조선의 장인』, 민속원, 2022.
- 장경희, 『국훈과 연향용 공예품을 만든 조선의 장인』, 민속원, 2022.

최응천, 『한눈에 보는 입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16.

최응천, 김연수, 『금속공예』, 솔, 2003.

4. 논문

구혜인, 「조선시대 선잠제 제기의 구성과 의미 - 영조 정해년 왕비친림작헌례의 제기를 중심으로 -」, 『서울과 역사』 112, 서울역사편찬원, 2022.

김경록, 「임진전쟁기 조선과 명의 전쟁인식과 군수정책」, 『중국사연구』 139, 중국사학회, 2022.

김세린, 「조선시대 금속공예 入絲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김세린, 「조선시대 입사장의 역할과 작업범주의 재해석」, 『무형유산』 3, 국립무형유산원, 2017.

김세린, 「조선시대 의례용 철퇴의 연원과 철퇴입사철퇴의 양상-육군박물관 소장 유물을 중심으로」, 『학예지』 24,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2017.

김우진, 「조선 전기 軍器寺의 冷兵器 제작과 관리-弓矢類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103, 조선시대사학회, 2022.

김은경, 「조선후기 청대 범랑자기 수용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유승주, 「朝鮮後期 軍需鑛工業史 研究 : 鳥銃製造를 中心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1.

유승주, 「조선전기 군수공업에 관한 일연구: 임난 중의 무기제조실태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32, 한국사학회, 1981.

윤용현, 조남철, 정영상, 임인호, 「상평통보 주조와 복원기술연구」, 『문화재』 47-4, 국립문화재연구소, 2014.

윤희정, 「조선시대 사의용 의례기 빨간 치의 쓰임과 성격」, 『한국문화연구』 42,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22.

이송란, 「조선후기 은제화장용기와 화장문화」, 『미술사학』 29,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15.

장경희, 「조선왕조 왕실가례용 공예품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장남원, 「조선시대 상장공예품의 의미와 구성-서울, 경기지역 민포매납품을 중심으로」, 『미술사연구』 24, 미술사연구회, 2010.

최응천, 「영, 정조시대의 금속공예」, 『강좌미술사』 15,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00.

홍성우, 「조선 후기 烽巖 무기체계와 운영」, 『역사와 경계』, 부산경남사학회, 2023.

5. 도록 및 보고서

국립고궁박물관, 『조선왕실의 어보』 1-3, 2009.

국립문화재연구소, 『독일 쾰른동아시아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2007.

국립문화재연구소, 『독일 라이프치히그라시민속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2013.

국립문화재연구소, 『영국 빅토리아앨버트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2013.

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 조사연구(VII) - 금속, 나무, 가죽상감』, 1999.

국립중앙박물관, 『우리나라 금속공예의 정수-입사공예-』, 1997.

육군박물관, 『육군박물관 소장품도록』, 2011.

육군박물관, 『조선의 도검! 충을 버리다』, 2013.

6. 웹사이트

국립고궁박물관 <https://www.gogung.go.kr/>

국립무형유산원 디지털 아카이브 <https://www.iha.go.kr/service/index.nihc>

국립중앙박물관 이뮤지엄 <http://www.emuseum.go.kr/>

국립중앙박물관 <https://www.museum.go.kr/>

서울대학교 규장각 <https://kyu.snu.ac.kr/>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 장서각 <https://jsg.aks.ac.kr>

Abstract

ARRANGEMENT OF METAL INLAY ARTISANS OF THE CAPITAL
DEFENSE FORCES IN THE LATE JOSEON DYNASTY AND
ASPECTS OF METAL INLAY TECHNIQUES IN MILITARY
SUPPLIES

KIM SERINE (KIM, SE RINE)

The inlaid technique of metal crafts(Ipsa, 入絲) was used in the decoration of crafts with various purposes such as ceremonies, daily life, hobbies, and appreciation items for the royal family and civilians during the Joseon Dynasty. Intaglios were engraved on the surface of objects, and decorative materials made of metal were inserted into them to express patterns, letters, and symbols.

Analyzing relics and documents, the inlaid technique of metal crafts was also used in various ways for items used by the military during the Joseon Dynasty. Various purposes are confirmed, such as decoration and symbols of objects, delivery of letters, and dividing lines to mark the wicks of cannons. Analyzing the types identified in the current relics, it is clearly distinguished between symbols and decorations that indicate the user's position and ceremonial system, and practical purposes such as conveying military orders or marking weapons.

Military supplies during the Joseon Dynasty were basically produced

by artisans belonging to Gunkisi(軍器寺), a government office that manufactures military items at the central government office, and cooperated with craftsmen from other government offices depending on the situation. At the end of the 16th century and the beginning of the 17th century after two major wars, various weapons were introduced and the military system and martial arts system were revised and improved. Accordingly, the operating system of artisans who produced military supplies also changed. While maintaining the existing production system, the army in charge of the defense of the capital was also equipped with artisans so that they could directly produce the necessary military supplies. Artisans belonging to the Capital Defense Forces held the position of central artisan (京工匠) the same as artisans belonging to the central government office, and metal inlay artisans were included among them.

This thesis examines the aspects of inlaid techniques and the role of inlaid craftsmen in the late Joseon Dynasty military supplies that have been passed down as relics through the operating system of craftsmen who produced military supplies for the capital defense forces in the late Joseon Dynasty. In addition, this thesis aims to present the necessity and outline of research on military items, which have been relatively little studied in art history research.

Key Words : Metal inlaid technique(入絲技法, Ipsa), Metal inlaid artisan(入絲匠, Ipsajang), Military supplies, Firelock, Capital Defense Force military camp(中央軍營)